

제7절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1.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종합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제시하는 경영효율성 개선에 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생산비 세부항목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농가 경영효율성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므로 생산비 내 비중이 높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한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생산비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비용과 토지비용 등의 상승은 경제 전반의 인건비와 지가 상승의 영향이다. 이는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결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비용효율성 감소 추세, 주요인은 배분효율성 감소이다. 배분효율성 개선을 위해 농가의 시장정보 활용과 장부 기장 활용도 제고가 중요하다. 장부 기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 장부 등의 R&D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판매가격 및 요소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배분효율성 개선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가 위험관리 능력 향상이 중요하고,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가 요망된다.

넷째, 일부 품목의 경우 이윤효율성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축산의 이윤효율성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축산의 경우 규모화와 관련한 사육 및 자본규모, 대농구비 비율이 이윤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윤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도 축산 규모화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우의 경우 규모화 관련 변수가 이윤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다섯째, 축산과 달리 경종 품목의 경우 규모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비효율성 원인 분석 모형 추정 결과 재배면적 확대는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채소, 과채, 과일, 화훼 및 특작 품목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쌀의 경우 경영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어 고령농 은퇴 유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규모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구조조정에 한계 존재함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채소, 과채, 과일, 축산 일부 품목과 기타 식량작물의 경우 고용노동 비율이 높을수록 이윤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농가 차원에서 고용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농 증가로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우수 인력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인력수급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곱째, 채소, 과일 일부 품목과 기타 식량작물의 경우 유기질비료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 감소하였다. 환경농업 실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유기질 비료 개발, 보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품목(무, 노지포도, 콩, 옥수수)은 유기질비료 비율이 높을수록 배분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어 유기질 비료 구매를 위한 시장정보 제공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효율성 계측 결과는 화학비료와 농약 살포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농가 경영효율성 평가방법 개발이 요망된다.

여덟째, 고추, 딸기, 시설포도, 옥수수와 감자의 경우 농약 사용량이 높을수록 이윤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적정 수준의 농약 사용은 농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윤효율성 개선 측면